동아시아 7-8세기 轉法輪印 阿彌陀佛坐像 연구
안압지 출토 금동삼존판불의 도상적 원류와 관련하여

최 선 아*

Ⅰ. 서론
Ⅱ. 전법륜인 불좌상의 중국 전래
Ⅲ. 아미타불로서의 전법륜인 불좌상: 阿彌陀佛五十菩薩像
Ⅳ. 전법륜인 불좌상 재인식의 배경
Ⅴ. 한국과 일본의 전법륜인 불좌상
Ⅵ.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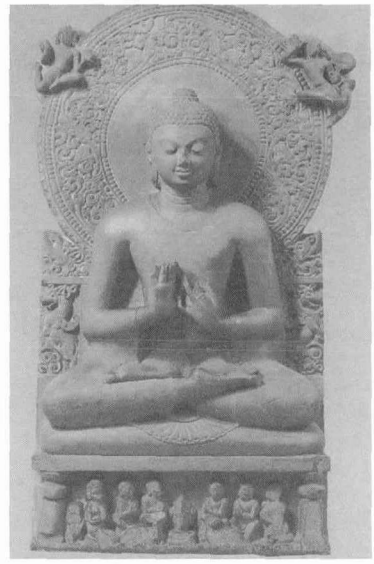
Ⅰ. 서론

1975년 경주 안압지 발굴 당시 연못 남단에서는 불좌상과 협시보살입상으로 이루어진 금동삼존판불 도1이 출토되었다.[1] 상의 양식적인 특징과 기법, 그리고 안압지의 조성과 주위 건물들의 건립 연대를 고려하여 7세기 말, 혹은 8세기 초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삼존 판불의 불좌상은 두 어깨를 감싸는 통견 대의를 입고 있으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려 轉法輪印

* University of Chicago 박사과정.

1 姜友邦, 「雁鴨池 出土 佛像」, 『雁鴨池報告書』 佛像編(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1978), pp.259-280.

도 1 안압지 출토 금동삼존판불, 7세기 후반, 27×20.5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雁鴨池發掘調査報告書』: 도 135-1)



도 2 사르나트 출토 불좌상, 5세기 후반, 높이 1.6m, 사르나트 考古박물관 소장 (『世界美術大展集』 東洋編 13: 도 63)

을 결하고 있다.

전법륜인이란 불타가 법을 설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수인으로, 이 수인을 한 불상의 기원은 5세기 인도 굽타시대 사르나트 지역에서 성립된 初轉法輪像도2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불좌상은 안압지 판불 외에도 7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중국 돈황 막고굴 제332굴 벽화도3와 7세기 말, 8세기 초로 여겨지는 일본 나라 法隆寺 금당 제6호벽 벽화도4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7-8세기 중국 · 한국 · 일본 동아시아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유행했던 불교 도상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2]

이 도상의 전래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학계에서는 인도와 중국을 오간 구법승들의 역할에 주목하였다.[3] 645년 천축 구법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현장법사는 7구의 인도 불상 모사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에 '사르나트 鹿野園 초전법륜상'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

2 金理那, 「통일신라시대 미술의 국제적 성격」, 『統一新羅 美術의 對外交涉』(한국미술사학회 著, 예경, 2001), pp.17-27.

도 3 敦煌 莫高窟 제332굴 東壁 남측벽
阿彌陀佛五十菩薩像, 聖歷 元年(698)
(『中國石窟 · 敦煌莫高窟』 3: 도 94)

도 4 日本 法隆寺 金堂 제6호벽 벽화, 7세기 후반-8세기 초(『奈良の寺』 8: 도 3)

문이다. 즉 현장의 소개에 따라 7-8세기 동아시아 삼국에서 전법륜인 불좌상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에 의문을 갖게 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어 주목된다. 첫째, 貞觀 元年(627)銘 塼佛과 같이 중국에는 현장의 귀국 시기인 645년보다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전법륜인 불좌상이 현존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장법사가 상을 소개하기 이전에 이미 중국에 전법륜인 불좌상 도상이 알려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현장법사가 가져온 인도의 상은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는 '석가모니불'의 모습을 형상화한 상이었던데 반해, 중국, 일본에서 유행한 전법륜인 불좌상은 명문이나 상이 놓여 있는 맥락을 살펴볼 때 '아미타불상'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실은 동아시아 삼국의 전법륜인 불좌상 유행에 있어 현장법사가 가져온 상이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재고하게 만들어준다.

---

3 金理那, 「統一新羅 佛教彫刻에 보이는 國際的 要素」, 『新羅文化』 第8輯(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1), pp.49-67; 同著, 「玄奘의 인도 여행과 統一新羅 佛像의 새로운 圖像」, 『韓國古代佛教彫刻 比較研究』(문예출판사, 2003), pp.222-240.

특히 인도에는 전법륜인 불좌상이 아미타불로 제작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도상에 대해 중국, 일본 불교도들이 독자적인 이해와 해석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전법륜인 불좌상과 관련된 이러한 복잡한 양상은 우리나라 안압지 판불의 존명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안압지 판불의 전법륜인 불좌상은 아미타불로 제작되어 있는 일본의 전법륜인 불상들과의 형식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아미타불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다.[4] 그러나 안압지 판불 자체에는 그것을 아미타불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인도의 전법륜인 불좌상처럼 석가모니불상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5] 통일신라와 공통된 문화권을 이루고 있었던 당과 나라에서 동일한 형식의 전법륜인 불좌상이 주로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제작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큰 의미를 지니지만, 전법륜인 불좌상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신앙적 배경하에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變用되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 그것이 안압지 판불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안압지 판불의 존명은 아미타불로 규정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본 논문에서는 7-8세기 동아시아 삼국에서 전법륜인 불좌상이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변용될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6]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중국의 상들을 통해 전법륜인 불좌상이 중국에 전해진 시점과 그것이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변용되기 시작한 시점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전법륜인 불좌상이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수용되는 계기를 찾은 후, 우리나라 안압지 판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

4 姜友邦, 앞의 논문, pp.259-280; 秦弘燮, 「雁鴨池出土 金銅板佛」, 『考古美術』 154 · 155(1982. 6), pp.1-16.

5 1978년 안압지 발굴보고서에서 삼존판불을 아미타삼존으로 발표한 姜友邦은 최근 다른 저서에서 '예전에는 아미타불로 생각하였으나 석가불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초기 견해를 바꾸기도 하였다. 姜友邦, 『한국불교조각의 흐름』(대원사, 1999/1995 初版), pp.259-260.

6 전법륜인 아미타불좌상에 대한 논문으로는 岡田健, 「初唐期の轉法輪印阿彌陀圖像についての研究」, 『美術研究』 373호(2000), pp.159-205가 있다. 본 논문과 유사한 시각으로 전법륜인 아미타불좌상을 다룬 이 글은 7-8세기 동아시아 삼국의 전법륜인 불좌상을 포괄적으로 소개하였으나, 그것이 아미타불로 제작되게 된 배경에 대한 고찰은 매우 간략하다. 6세기 후반 중국에서 아미타불의 불국토인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정토왕생사상이 고조되자 인도의 '서방적' 이미지가 강한 전법륜인 불좌상이 서방 극락세계의 주존, 아미타불로 새로이 창안된 것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정토신앙이 고조됨에 따라 새로운 도상을 필요로 하였을 가능성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서방극락세계의 '서방'과 전법륜인 불좌상 도상의 '서방'적 이미지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 그의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

Ⅱ. 전법륜인 불좌상의 중국 전래

기원후 5세기, 사르나트 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인도의 전법륜인 불좌상은 대부분 석가모니불의 상으로만 제작되었을 뿐,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다.[7] 사르나트 출토 전법륜인 불좌상을 보면 도2, 대좌에는 설법을 상징하는 법륜과 녹야원을 상징하는 사슴, 그리고 설법을 듣는 제자들을 조각하여 대좌 위의 주존은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는 석가모니불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도의 전법륜인 불좌상은 주위에 여러 소불들을 배치하여 舍衛城 神變 千佛化現을 보이는 또 다른 석가상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8] 사위성 신변 천불화현이란, 육사외도들이 불타에게 신통력으로 겨루어보자고 도전하자 불타가 천불을 화현시키는 신변을 보였다고 하는 내용의 설화로, 천불을 화현시키는 석가모니의 모습으로 전법륜인 불좌상 도상이 사용된 것이다.

사위성 신변과 녹야원 초전법륜 장면이 동시에 표현된 굽타시대 佛傳八相 부조를 보면, 단독으로 제작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장면을 의미하는 서사적인 장치들, 즉 초전법륜 장면의 법륜과 사슴, 사위성 신변 장면의 소불 등은 그대로 표현되어 각각의 장면을 암시하고 있다.[9] 이와 같이 인도의 전법륜인 불좌상은 초전법륜이나 사위성 신변을 보이는 석가모니불의 상으로만 제작되었을 뿐,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제작된 경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인도의 전법륜인 불좌상이 중국에 전해졌음을 알려주는 문헌 기록으로는 현장의 『大唐西域記』가 유일하다.[10] 그가 모사해 온 7구의 인도 불상 중 두 번째로 '녹야원 초전

---

7 밀교의 정인 아미타상 이전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아미타불상으로 확실한 것은 1977년 마투라에서 발견된 'Amitabha' 라는 명문이 있는 석조불상 대좌가 유일하다. 이 불상 대좌에 대해서는 Gregory Schopen, "The Inscription on the Kusan Image of Amitabha and the Character of the Early Mahayana in Indea,"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10, no.2 (1987)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대좌와 불상의 발 부분만이 남아 있어 상 전체가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기는 불가능하다. 인도의 아미타불상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光森正士, 『阿彌陀如來像』 日本の美術 241(至文堂, 1986); 金善卿, 「唐代 阿彌陀三尊佛의 圖像과 長安 光宅寺 七寶臺 阿彌陀三尊像」(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8), pp.23-29 참조. 인도에서의 전법륜인 불좌상의 성립과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秋山光文, 「インドのおける「初轉法輪」像の成立と展開」, 國際交流美術史研究會 · 第14回國際シンポジアム 『佛教美術史研究における「圖像と様式」』 報告書(1996), pp.38-46.

8 『世界美術大展集』 東洋編, 13 インド (1)(小學館, 2000), fig.306 참조.

9 『世界美術大展集』 東洋編, 13 インド (1)(小學館, 2000), fig.166 참조.

도 5 山東省 青州 龍興寺址 출토 불입상 세부, 北齊, 青州市박물관 소장 (『青州龍興寺佛教造像藝術』 (山東美術出版社, 1999): 도 138)

법륜상'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중국의 불상을 살펴보면, 현장의 구법 여행 이전에 이미 전법륜인 불좌상이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 있어 주목된다.

예를 들어 青州 龍興寺址에서 출토된 北齊시대 불입상 중에는 佛身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이 있는데, 상의 가슴 부분을 보면, 전법륜인을 결한 倚坐佛을 찾아볼 수 있다도5. 洛陽 平等寺址에 남아 있는 북제대 佛碑像에서도 전법륜인 불좌상의 초기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불비상 중앙부에는 불좌상 삼존이 조각된 龕이 있는데, 그 안을 보면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고 있는 불좌상이 있다. 비록 손 부분은 결실되었지만 팔의 위치로 보아 전법륜인을 결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11]

---

10 현장이 모사하여 가져온 상은 다음과 같다. ①金佛像一軀 通光座高尺有六寸 擬摩揭陀國前正覺山龍窟影像 ②金佛像一軀 通光座高三尺三寸 擬婆羅尼斯國鹿野苑初轉法輪像 ③刻檀佛像一軀 通光座高尺有五寸 擬憍賞彌國出愛王思慕如來刻檀寫眞像 ④刻檀佛像一軀 通光座高二尺九寸 擬劫比他國如來自天宮降履寶階像 ⑤銀佛像一軀 通光座高四尺 擬摩揭陀國鷲峰山說法花等經像 ⑥金佛像一軀 通光座高三尺五寸 擬那揭羅曷國伏毒龍所留影像 ⑦刻檀佛像一軀 通光座高尺有三寸 擬吠舍釐國巡城行化像(『大正藏』 卷51, no.2087, p.946c).

11 李獻奇, 「北齊洛陽平等寺造像碑」, 『中原文物』 1985年 第4期, pp.89-97. 도판은 본 논문의 pl.3-1, 岡田健, 앞의 논문, fig.29 참조.

도 6 河南省 大住聖窟 서벽감 좌측 소불감, 開皇 9년(589) (『中國美術全集 彫塑編』 13: 도 212)

도 7 塼佛 탁본, 貞觀 元年(627), 8.8×8.8cm(岡田健, 2000: 도 23)

隋 開皇 9년(589)에 완성된 하남성 安養 大住聖窟에서도 전법륜인 불좌상을 찾아볼 수 있다. 대형 감 좌우에 있는 多佛 小龕을 보면, 선정인을 비롯하여 시무외, 여원인 등 수인이 다른 여러 가지 형식의 불좌상들이 교대로 배치되어 있다도6. 그 가운데 팔을 들어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고 전법륜인을 하고 있는 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관 원년명, 즉 627년의 기년을 가진 전불에서도 전법륜인 불좌상이 나타난다. 탁본으로 처음 소개되었던 이 전불의 앞면에는 전법륜인 불좌상 삼존이 있고, 뒷면에는 정관 원년, 즉 627년이라고 하는 제작 연대가 있어, 현장 귀국보다 18년이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도7. 이와 동일한 실제 전불이 일본 나라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陝西省 西安市 醴泉寺址 터에서 동일한 전불들이 출토되었다. 이로써 이러한 전불은 7세기 초, 당시 수도였던 장안을 중심으로 다량 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12]

비록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전법륜인 불좌상 도상은 현장법사의 구법 여행 이전 이미 중국에 전해져 있었다. 그러나 인도에서와는 달리, 반드시 법륜이나 사슴, 혹은 소불 등과 같은 서사적인 장치 가운데 놓여 특정한 의미의 석가모니불상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었다. 도상이 전해진 루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존하는 초기작들

12 현재 이 塼佛들은 서안 大雁塔 옆에 마련된 陳列館에 전시되어 있다. 岡田健, 앞의 논문, p.177.

이 산동성, 하남성 등지인 당시 북제 지역에서 발견되는 점, 시기적으로도 6세기 후반, 북제 대부터 나타나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Ⅲ. 아미타불로서의 전법륜인 불좌상: 阿彌陀佛五十菩薩像

그렇다면 중국의 전법륜인 불좌상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것일까?

정관 원년명 전불 이후 중국의 전법륜인 불좌상은 단독으로 제작된 경우가 매우 드물다. 대신 돈황 막고굴이나 사천성 지역의 여러 석굴에는 주위에 수많은 소보살상들을 배치하여 하나의 세트로 제작된 전법륜인 불좌상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예가 바로 돈황 막고굴 제332굴 벽화이다도3.

제332굴은 굴 전실에 있었던 조상비 비문을 통해 698년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13] 이 굴의 주실 동벽 남측을 보면, 화면 한 가운데에는 통견 법의를 입고 전법륜인을 결한 불좌상이 큰 연화좌 위에 앉아 있고, 양 옆에는 협시보살 입상이, 삼존의 주위에는 작은 연화좌 위에 자유로운 자세로 앉아 있는 소보살상들이 가득 그려져 있다. 이른 시기부터 이 벽화를 연구한 일본 학자들은 이것을 『集神州三寶感通錄』에 기록된 '阿彌陀佛五十菩薩像'이라고 하는 瑞像을 도해한 것으로 추정해 왔다. 唐 龍朔 3년(663) 장안 西明寺 道宣 율사에 의해 편찬된 『집신주삼보감통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부록1 참조.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이란 西域 天竺의 瑞像으로, 일찍이 후한 명제 무렵 인도로부터 중국에 전해졌으나 오랫동안 유포되지 못하다가 수대 이후 도상과 이야기가 다시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도선이 이 이야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장안 사원의 벽에 벽화로 널리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14] 다시 돈황 제332굴 벽화를 보면, 삼존의 주위에 그려져 있는 보살상의 수는 정확히 50이 된다. 이에 일본 학자들은 이 제332굴 벽화를 당시 장안 사원의 벽에 벽화로 그려져 있던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의 본이 돈황으로 전해져 제작된 것으로 추정해 왔다.[15] 그와 같은 추정이 맞다면, 여

13 宿白, 「《武周聖歷李君莫高窟佛龕碑》合校」, 『中國石窟史研究』(文物出版社, 1996), pp.262-269(原載, 『敦煌吐魯番學研究論文集』, 1990).

14 원문은 〈부록 1〉 참조.

도 8 四川省 梓潼縣 臥龍山 千佛崖 西面龕
阿彌陀佛五十菩薩像, 貞觀 8년(634)
(『中國石窟彫塑全集』 8: 도 155)

기에서의 주존, 전법륜인 불좌상은 바로 아미타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四川省 梓潼縣 臥龍山 千佛巖에서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새겨진 造像碑와 그에 해당되는 상이 발견되어 이와 같은 추정을 입증해 주었다.[16]

거대한 바위 네 면에 큼지막하게 감을 만들어 놓은 천불암의 西面龕을 보면, 중앙에는 큰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불좌상이 있다도8. 손의 일부를 잃고, 전체적으로 많은 후보가 이루어졌지만, 팔을 들어 올린 위치로 보아 전법륜인을 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옆으로는 협시보살입상이, 그 주위 좌우 벽으로는 소보살상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형상은 매우 다양하다. 좌우 벽에 가득히 조각되어 있는 소보살상들의 수를 세어보면 정확히 50이 된다. 즉, 회화와 조각이라고 하는 매체가 다를 뿐, 돈황 제332굴 벽화와 이 재동현 천불암의 조상은 모두 같은 본에 의거해서 제작된 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서면감의 바깥쪽 벽면에는 비 모양의 구획이 있는데, 그 안에 20행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부록2 참조. 비문의 마지막에는 정관 8년, 즉 634년이라고 하는 조상 연

15 內藤藤一郎, 『法隆寺壁畵の硏究』(東洋美術硏究會大阪支部, 1931), pp.121-132; 松本榮一, 『敦煌畵の硏究』(同明社, 1937), p.39.

16 이 상을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은 四川省 社會科學院의 胡文和이다. 胡文和, 「四川唐代磨崖造像中的"西方淨土變"」, 『四川文物』 1989年 第1期, pp.27-32. 이후 중국, 일본학자들에 의해 보다 자세하고 분석적인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李巳生, 「一佛五十菩薩和菩薩裝佛」, 『敦煌硏究』 1991年 第2期, pp.49-58; 勝木言一郎, 「中國における阿彌陀三尊五十菩薩圖の圖像について一臥龍山千佛岩の作例紹介とその意義」, 『佛教藝術』 214号(每日新聞社, 1994), pp.61-73.

도 9 四川省 綿陽市 壁水寺
阿彌陀佛五十菩薩像龕
(사진: 필자)

대가 새겨져 있고, 명문의 내용은 몇 군데의 오자와 보다 더 자세히 각색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도선의 기록과 거의 동일하다.[17] 즉 감 안에 만들어진 상은 바로 '아미타불오십보살상'으로, 이를 통해 일본 학자들의 추정한 바대로 돈황 막고굴 제332굴 벽화 역시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을 도해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동현 와룡산 천불암 상 외에도, 사천성 지역에 있는 여러 석굴들에는 이러한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이 조각된 불감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7세기 초, 정관 연간에 만들어진 사천성 綿陽市 壁水寺에도 전법륜인 불좌상과 협시보살, 그리고 여러 체의 소보살상들로 이루어진 아미타불오십보살상 감이 있다도9.[18] 당 龍朔 3년(663)에 만들어진 사천성 通江縣 千佛崖에도 그와 같은 도상을 가진 감이 있다.[19] 비록 파손이 심하긴 하지만 중앙의 불좌상은 가슴 앞으로 두 손을 모아 전법륜인을 결하고 있으며, 주위에는 여러 가지 자세의 소보살상들이 있다. 이뿐 아니라 7세기 말, 8세기 초의 조상들이 많은 사천성 巴中 南龕石窟에서도 아미타불오십보살상 불감을 여럿 볼 수 있다도10.[20]

---

17 비문은 〈부록 2〉 참조.

18 文齋國, 「綿陽唐代佛教造像初探」, 『四川文物』 1991年 第5期, p.47.

19 이 상 옆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이 남아 있다. "阿彌陀佛龕大唐龍朔三季歲次癸亥元年辛亥朔建麟德二年歲次乙丑二月庚辰塑新觀音……", 陶鳴寬, 「通江縣的摩岩造像」, 『文物』, 1957年 第11期, p.70. 通江 佛日巖이라는 곳에서도 아미타불오십보살상 감을 찾아볼 수 있다. 도판은 崔善娥, 「7-8세기 轉法輪印 佛坐像과 阿彌陀佛五十菩薩像圖像」(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2), 圖 36-1, 38 참조.

도 10 四川省 巴中市 南龕石窟
제116호 阿彌陀佛五十菩薩像龕
(사진: 필자)

이와 같이, 634년 사천성 재동현 와룡산의 상으로부터 시작하여 698년의 돈황 막고굴 제332굴 벽화까지, 중국의 전법륜인 불좌상은, 주위에 50체의 소보살상들을 배치하여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다.[21] 바로 여기에서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의 주존, 전법륜인 불좌상은 중국에서 전법륜인 불좌상이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이른 예에 해당된다. 특히 634년에 만들어진 사천성 재동현 천불암의 상과 645년이라는 현장법사의 귀국연대를 비교해 볼 때, 중국에서 전법륜인 불좌상은 현장의 귀국보다 10여 년 먼저 아미타불의 상으로 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전법륜인 불좌상을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삼고 있는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은 언제, 어디에서 처음 성립된 것이며, 어떠한 배경에서 전법륜인 불좌상을 주존으로 삼게 된 것일까.

---

20 陳明達, 「四川巴中, 通江兩縣石窟介紹」, 『文物』 1955年 第2期, pp.102-106; 負安志, 「四川巴中縣石窟調查記」, 『考古與文物』 1986年 第1期, p.51; Angela F. Howard, "Tang Buddhist Sculpture of Sichuan: Unknown and Forgotten,"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no.60 (1988), pp.1-164; 丁明夷, 「川北石窟札記一從廣元到巴中」, 『文物』 1990年 第6期, pp.41-53. 116호감 외에도 62호, 33호감 등에도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이 조각되어 있다. 도판은 崔善娥, 앞의 논문, 圖 41, 42 참조.

21 이 외에도 하남성 용문석굴 袁弘勣洞의 조상 역시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을 만든 것임이 최근 岡田健에 의해 밝혀졌다. 岡田健, 앞의 논문, pp.159-160.

IV. 전법륜인 불좌상 재인식의 배경

1. 瑞像 제작의 전통

사천성 재동현 와룡산의 비문과 도선의 『집신주삼보감통록』 두 기록에는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의 형성과정과 도상의 전파과정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 우선 두 기록 모두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은 서역 천축 雞頭摩寺의 五通菩薩이 안락계의 아미타불에게 청원을 하여 얻게 된 도상이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는 당시 불교도들이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이기는 하지만, 상의 형성과정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단지 믿기 힘든 허구에 불과하다.

다시 기록을 보면, 그러한 전설이 있는 도상은, 後漢 明帝 무렵, 迦葉摩騰의 姊子에 의해, 서역으로부터 중국에 전해졌다고 한다. 구체적인 시점과 역사적인 인명이 등장하지만 이 이야기 역시 의심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도상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가섭마등의 姊子라는 인물 자체가 본래 실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梁 慧皎의 『高僧傳』에 의하면 가섭마등은 후한 명제 때 사신을 따라 중국에 온 첫 서역 사문이라고 한다.[22] 그러나 이와 같은 한 명제 감몽구법설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 각색되어 완성된 것으로, 비교적 초기 형태에 해당되는 晉 袁宏의 『後漢紀』를 보면 명제가 파견한 사신의 이름이나 서역의 사문이 중국으로 왔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23] 『고승전』이 전하고 있는 형태의 한 명제 감몽구법설화는 비교적 후대에 완성된 것으로, 그 사이 사신의 이름이 등장하고, 서역 사문이 중국에 오게 되었다는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지게 된 것이다.[24] 가섭마등이란 인물은 설화 각색 과정 중에 생겨난 허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姊子가 중국 땅으로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을 가지고

---

22 "漢永平中 明皇帝夜夢金人飛空而至 乃大集群臣 以占所夢 通人傅毅奉答 臣聞西域有神 其名曰佛 陛下所夢將必是乎 帝以爲然 卽遣郎中蔡愔博士弟子秦景等 使往天竺尋訪佛法 愔等於彼遇見摩騰 乃要還漢地", 『大正藏』 卷50, no.2059, pp.322c-323a.

23 "初明帝夢見金人長大項有日月光 以問群臣或曰西方有神其名曰佛其形長大 乃問其道術, 而圖其形像焉", 『文淵閣四庫全書』 史部 61, p.605.

24 한명제 구법 설화의 자세한 각색과정은 鎌田茂雄 著 · 章輝玉 譯, 『中國佛敎史』(장승, 1992), pp.123-134 참조.

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역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상의 형성과 도상의 전래 과정에 이와 같은 허구적인 이야기가 덧붙여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다. 기록 첫머리에 명시되어 있듯,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은 '瑞像'이라는 점이다. '서상'이란, 신비로운 계기에 의해 생겨나게 되었다거나, 감응을 일으키는 기이한 행적을 보인다고 여겨지는 상을 일컫는다.[25]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도선의 『집신주삼보감통록』에는 아미타불오십보살상 외에도 많은 서상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모두 아미타불오십보살상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이 바다 위에서 떠 왔다거나, 빛이 나는 곳으로 가 보니 상이 저절로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상들은 스스로 몸을 움직이거나 땀, 눈물을 흘리는 등 기이한 행적을 벌였다고도 한다. 실제적인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역사적인 정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불가능한 이야기들도 있다. 경주 황룡사 丈六尊像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진 阿育王像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도선의 『집신주삼보감통록』에 실려 있는 아육왕상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어느날 중국 땅에서 우연한 계기에 의해 상을 발견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명문에 인도의 아육왕, 혹은 아육왕의 딸이 만든 상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26]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육왕, 즉 아쇼카 왕은 자신의 영토 각지에 불법을 홍포한 제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가 생존했던 기원전 3세기는 아직 불상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로, 그가 만들 불상이 중국에 전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瑞像에는 역사적인 증거가 희박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한다. 서상에 전하는 이러한 허구적인 이야기에 대해 관심을 갖은 여러 서양 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의 기능을 불법의 근원지인 인도와의 인연을 강조하여 상의 권위를 높이고, 신비로운 경

25 최근 중국,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瑞像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돈황 막고굴 제231, 237굴 등 中唐代 굴 龕頂에 短冊圖 형식으로 제작된 소위 '瑞像圖'를 주목한 孫修身은 瑞祥을 갖춘, 특히 釋迦牟尼의 특징을 具足한 상을 瑞像이라고 칭한다고 했으며(孫修身, 「莫高窟の緣起說話畵」,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4(平凡社, 1982), p.238), 久野美樹는 일반적으로 석가의 위대한 행적과 관련된 상이나 불교 관계의 기적과 관계된 상을 瑞像이라고 했다(구노미키 저 · 최성은 역, 『중국의 불교미술』(시공사, 2001), p.103). 많은 학자들이 瑞像을 석가모니와 관련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阿彌陀佛五十菩薩像을 '瑞像'이라고 칭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瑞像이라는 용어 자체는 특정한 尊名에 국한되지 않고 祥瑞로운 像이라고 하는 의미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6 『집신주삼보감통록』에는 총 5편의 아육왕상 이야기가 실려 있다. '西晉吳郡石像浮江緣', '晉揚都金像出渚緣', '東晉荊州金像遠降緣', '南吳建鄴金像從地出緣', '東晉廬山文殊金像緣.'

도 11 四川省 成都 출토
阿育王像, 梁 太淸
5년(551), 높이 48cm
(『文物』 1998. 11: 도 1)

험담들을 통해 상의 영험함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27]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락계의 아미타불이 상을 내려보내 주었다거나, 서역 천축의 승려에 의해 상이 전해졌다고 하는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의 이야기 역시 상에 대한 신비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서사적인 장치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은 다른 서상들과 마찬가지로 인도로부터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일정시기 중국 불교도들의 손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신비로운 유래가 있는 아미타불의 상으로, 중국 불교도들이 전법륜인 불좌상 도상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 역시 서상에 내재된 보편적인 특징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천성 성도에서 출토된 梁 太淸 5년(551)명 아육왕상의 경우, 동시대 6세기 중엽의 보편적인 불상 형식, 즉 漢化式 복장을 하고 있는 중국화된 불입상들과는 달리 실제로 매우 인도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다 도11.[28] 뿐만 아니라 도선의 『집신주삼보감통록』 열 네 번째 이야기로 실려 있는 凉州 番禾縣 서상의 경우도 대의를 편단우견으로 걸치고, 그 한 자락을 손에 쥐고 있는데 이처럼 불입상이 오른쪽 어깨를 완전히 드러낸 채 대의를 걸치고 있는 예는 동시기 중국 불상 가운데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29] 이러

27 Soper, Alexander C., *Literary Evidence for Early Buddhist Art in China* (Ascona: Artibus Asiae Publishers, 1959); Zürcher, Erik, "Buddhist Art in Medieval China: The Ecclesiastical View," *Function and Meaning in Buddhist Art*, edited by K.R. van Kooij and H. van der Veere (Groningen: Egbert Forsten, 1995), pp.119-228; Shinohara, Koichi, "Changing Roles for Miraculous Images in Medieval Chinese Buddhism: A Study of the Miracle Image Section in Daoxuans Collected Records," *Images, Miracles, and Authority in Asian Religious Traditions*, edited by Richard H. Davis (Boulder: Westview Press, 1998), pp.141-188.

28 成都市文物考古工作隊 · 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 「成都市西安路南朝石刻造像淸理簡報」, 『文物』(1998. 11), pp.7-8.

29 이 상에 관한 논문으로는 肥田路美, 「涼州番禾縣瑞像の說話と造形」, 『佛敎藝術』 217호(1994), pp.33-54; Wu Hung, "Rethinking Liu Sahe: The Creation of a Buddhist Saint and the Invention of a Miraculous Image," *Orientations* 27, 10 (1996), pp.32-43 등이 있다.

한 착의법의 불입상은 오히려 남인도나 스리랑카 등지의 불상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와 같이 신비로운 유래담이나 영험함을 가지고 있는 서상들은 동시기 보편적인 불상들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들이 모사되는 과정 중에서도 이와 같은 형식적인 특징들은 거의 변함 없이 그대로 지속되었다. 대부분의 서상들이 일반적인 불상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형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형식적 특징이 지속적으로 중시된 이유는 신비로운 유래담이 없는 일반적인 상들과 구별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서상들에게 독자적인 형식을 부여하고자 했던 중국 불교도들은 인도의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형식적 특성들을 참조하여 새로운 형식의 중국 불상을 창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상 제작의 전통을 고려해 볼 때, 전법륜인 불좌상 도상이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의 주존, 아미타불의 상으로 차용된 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다른 아미타불상들과 구별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된다. 7세기 이전, 중국의 아미타불좌상은 대부분 시무외, 여원인의 수인을 한 불좌상 형식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평범한 아미타불상과는 차별되는, 신비로운 유래가 있는 아미타불의 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중국 불교도들은 마침 당시 중국에 전해져 있었던 전법륜인 불좌상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인도 불상 형식을 그대로 따른 이 전법륜인 불좌상은 인도에 기원을 기탁한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매우 적합했을 것이다. 즉 6세기 후반 이미 중국에 알려져 있었던 인도의 전법륜인 불좌상은 오래 전부터 내려온 중국의 서상 제작의 전통 속에서 신비로운 유래가 있는 서상의 일종으로 재창안된 것이다.

그렇다면 아미타불오십보살상 서상은 언제, 어디에서 창안된 것일까? 전법륜인 불좌상 도상이 신비로운 유래가 있는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재인식된 시점은 언제일까?

2. 北齊 鄴都의 정토사상

중국에 전하는 여러 서상 중에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은 성립 배경에 '아미타정토신앙'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신앙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 그리고 기록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의 성립 배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북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기록 모두 오랫동안 잊혀졌던 상이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된 계기는 明憲이라는 사문이 북제 道長法師의 처소에서 상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북제 도장법사라는 인물은 北周 慧影의 『大智度論疏』, 隋 道綽의 『安樂集』, 唐 道宣의 『續高僧傳』 등 여러 불교 문헌에 그 이름이 등장한다. 이 문헌들에 따르면, 도장법사는 북제의 수도 업도에 머무르면서 지론을 강설했던 유명한 대학승이라고 한다.[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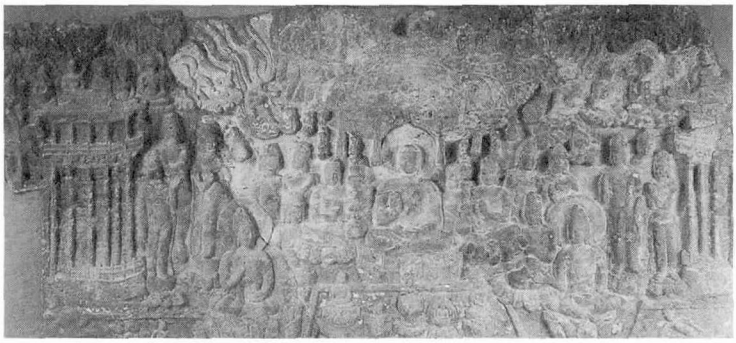
지도 1 중국 全圖

또 다른 근거는 사천성 재동현 와룡산 천불암의 조상비의 비문 가운데,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은 자신이 통치하던 豫州에서 상을 얻은 刺史 鄭氏에 의해 다시 장안으로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다. 자사 정씨가 상을 얻었던 예주 역시 현재 하남성 낙양과 가까운, 옛 북제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지도1 참조.

아미타불오십보살상 도상의 기원이 鄴都를 중심으로 한 북제와 관련이 있음은 사천성 재동현 와룡산 천불암의 비문과 도선의 『집신주삼보감통록』 외에 다른 기록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속고승전』 隋代 사문 慧海의 전기를 보면, 일생을 정토신앙의 실천에 힘쓴 혜해는 大象 2년(580) 업도에서 강소성 江都로 내려가 大業 5년(609) 임종 시까지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 사이 齊州에서 온 승려 道詮이 '계두마사의 오통보살이 허공을 타고 안락세계로 날아가 존의를 베껴 그린 무량수상' 을 전해주었다고 한다.[31] 세부사항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30 "釋志念 俗緣陳氏 冀州信都人 其先潁川寔蕃之後胤也 因官而居河朔焉 念冰清表志岳峙澄神 俊朗絶倫觀方在慮 爰至受具問道鄴都 有道長法師精通智論 爲學者之宗 乃荷箱從聽經于數載 便與當席擅名 所謂誕禮休繼等 一期俊列連衡", 『大正藏』 卷50, no.2060, p.508b. "釋明瞻 姓杜氏 恒州石邑人也 少有異操 所住龍貴村二千餘家 同共高之傳于口實 十四通經 十七明史 州縣乃擧爲俊士 性慕超方不從辟命 投飛龍山應覺寺而出家焉 師密異其度 乃致書與鄴下大集寺道場法師令其依攝 專學大論", 『大正藏』 卷50, no. 2060, p.632c.

31 "以周大象二年來儀濤浦 創居安樂修葺伽藍莊嚴佛事建造重閣 躬自經始咸資率化 竭筋力而忘倦 蒙寒暑而載馳 常以淨土爲期 專精致感 忽有齊州僧道詮 齎畫無量壽像來云 是天竺雞頭摩寺五通菩薩 乘空往彼安樂世界圖寫尊儀



도 12 河南省 南響堂山石窟 제2굴 阿彌陀淨土變 浮彫, 北齊, 6세기 후반, 158.9×334.5cm, 미국 프리어 갤러리 소장(Howard, 1993: 도 6)

전체적인 맥락에서 아미타불오십보살상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와 같은 전실이 있는 상이 도전이 강도로 내려가기 이전, 제주라는 곳에 전해져 있었음을 시사한다. 제주는 현 山東省 歷城縣의 옛 지명으로, 북제의 수도 업도와 매우 가까운 곳이다.

이와 같이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은 기록상 업도를 중심으로 한 북제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6세기 후반 북제는 사상적으로도 여러 학승들 사이에서 아미타정토사상이 흥기했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32] 새로운 형식의 정토 미술들이 등장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예를 들어 북제의 수도 업도 주위에 있는 남향당산 석굴에는 불타의 설법 장면이 매우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된 아미타정토도 부조가 있으며 도12,[33] 업도 주위에 있는 小南海石窟에는 아미타의 극락 세계로 왕생하는 9가지 방법을 표현한 九品往生浮彫가 제작되어 있다.[34] 두 작품 모두 경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北齊人들의 정토사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수준을 가늠케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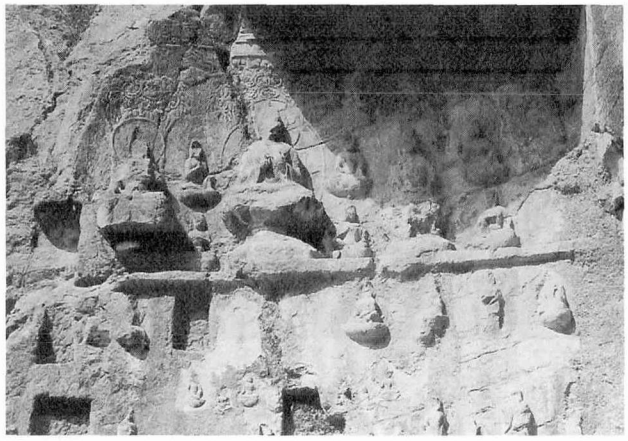
이와 같이 해당하는 기록과, 전법륜인 불좌상들의 초기 예들이 6세기 북제 지역에서 발견되는 점, 그리고 아미타정토사상이 매우 고조되어 새로운 형식의 정토미술이 많이 제작되고 있었던 북제의 시대상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전법륜인 불좌상을 아미타불로 삼고 있는 아

旣冥會素情深懷禮懺 乃睹神光炤鄰 慶所希幸 於是模寫慇苦 願生彼土 沒齒爲念", 『大正藏』 卷50, no.2060, p.515c.

32 望月信亨, 『中國淨土教理史』(法藏館, 1975), pp.63-67.

33 이 부조는 현재 본래 위치에서 떼어내져 미국 프리어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다. Howard, Angela, "Highlights of Chinese Buddhist Sculpture in the Freer Collection," *Orientations* (may 1993), pp.93-101.

34 『中國美術全集彫塑編 13: 鞏縣天龍山響堂山安陽石窟彫刻』(錦繡出版社, 1989), 도 198; 勝木言一郎, 「小南海石窟中窟の三佛造像と九品往生圖浮彫に關する」, 『美術史』 第139冊(1996), pp.68-86.



도 13 河南省 龍門石窟 萬佛溝
阿彌陀淨土變龕, 7세기 말
(『中國石窟 龍門石窟』 2: 도 250)

미타불오십보살상은 6세기 말, 북제 지역에서 성립된 새로운 불교 도상일 가능성이 높다.[35] 바꾸어 말하면, 6세기 후반 중국에 알려져 있었던 인도의 전법륜인 불좌상 도상은 아미타정토사상의 대두로 새로운 형식의 정토미술이 발현되던 시기, 서상 제작의 전통과 맞물려, 신비로운 유래가 있는 새로운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變用된 것이다.

중국의 전법륜인 불좌상은 주로 50체의 소보살상들과 결합하여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트로 제작되었지만, 간혹 소보살상 없이 단독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龍門石窟 獅子洞 외벽에는 '阿彌陀像四區'라는 명문을 가진 소감이 있는데 그 안에 전법륜인을 결한 불좌상이 있고, 용문석굴 동산 萬佛溝에 있는 아미타정토도 부조 도13 중의 주존 역시 전법륜인 불좌상이다. 두 상 모두 명문이나 상이 놓인 맥락을 살펴보면 모두 아미타불상임이 확실하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서상들이 여러 차례 모사되는 과정 중에서도 그 형식적인 특징은 그대로 지켜졌듯이, 이 전법륜인 · 아미타불좌상들은 마치 하나의 본에 의거해서 제작된 듯 대의의 주름 방식마저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의 아미타불상과 동일하다. 이러한 단독 전법륜인 · 아미타불좌상이 언제부터 등장하게 된 것인지, 단독으로도

35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남향당산 석굴의 정토도 부조 맞은편에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의 도상들과 매우 유사한 상들로 이루어진 부조가 있다는 점이다(Angela Howard, 앞의 논문, fig.7). 중앙에는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고 있는 불좌상이, 그 주위에는 여러 가지 자유로운 자세의 보살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 부조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진 바 없지만,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의 도상들과 매우 유사한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 이 부조 역시 현재는 미국 프리어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다.

존재하면서도 아미타불오십보살상과 마찬가지로 신비로운 유래가 있는 서상으로 여겨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은 형식의 전법륜인 불좌상이 형식적인 특징을 유지한 채 단독으로도 아미타불상으로 제작되고 있었음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만들어진 동일한 형식의 전법륜인 불좌상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V. 한국과 일본의 전법륜인 불좌상

당 문화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던 7-8세기, 통일신라와 일본의 나라에서도 동일한 형식의 전법륜인 불좌상이 만들어졌다. 일본 法隆寺 金堂 제6호벽 벽화를 보면, 중국의 전법륜인 불좌상과 동일한 형식을 띠고 있는 전법륜인 불좌상을 찾아볼 수 있다. 좌우에는 협시보살입상이 있고, 지금은 많은 부분이 박락되어 잘 알아보기는 힘드나 이전에 그려진 모사도를 참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주위에 소보살상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도면1 참조. 보살상의 수는 50이 채 안되지만, 포즈를 살펴보면,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 한 손을 들어 올린 모습, 가슴 앞으로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 등이 중국의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의 보살들과 거의 동일하다. 이와 같은 도상들이 전혀 만들어진 바 없는 일본에서, 이 시기 갑자기 이러한 도상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당시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의 본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36]

도면 1 日本 法隆寺 金堂 제6호벽 벽화,
樋口富麻呂의 模寫圖
(春山武松, 『法隆寺壁畵』, 朝日新聞社, 1947)

36 內藤藤一郎, 『法隆寺壁畵の研究』(東洋美術研究會大阪支部, 1931), pp.121-132; 河原由雄, 「金堂壁畵-壁畵による佛殿莊嚴の東遷」, 『法隆寺金堂壁畵』(朝日新聞社, 1994), p.92.

도 14 日本 法隆寺獻納寶物 阿彌陀五尊 押出佛, 8세기(『法隆寺寶物館』: p.66)

이 외에도 일본에는 압출불의 형태로 만들어진 전법륜인 불좌상이 있다. 현재 호류지 헌납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압출불의 전법륜인 불좌상은 주위에 소보살상은 없지만, 좌우 협시보살의 보관에 관음과 세지의 표식인 화불과 정병이 매우 크게 표현되어 있어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확인시켜준다 도14.

이와 같이 이 시기 일본에서는 이미 중국에서 새로운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재인식된 전법륜인 불좌상 도상을 받아들여 호류지 금당벽화처럼 비록 그 수는 모자라지만 소보살상들과 함께 배치하여 아미타불오십보살상과 유사하게 만들기도 하였고, 압출불처럼 협시보살과 비구상을 주위에 두어 아미타오존상으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안압지 출토 금동삼존판불의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삼존판불의 주존 전법륜인 불좌상 역시 일본의 상들과 마찬가지로, 마치 같은 본에 의거해서 제작된 듯, 중국에서 유행한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의 주존 아미타불좌상과 동일한 형식적 특징을 띠고 있다. 비록 안압지 판불 자체에는 그것이 아미타불임을 입증할 만한 단서는 없지만, 당시 중국에서 이와 같은 전법륜인 불좌상이 새로운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변용되어 유행하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그러한 도상이 형식적 특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반복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동일한 도상이 일본에서도 그대로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수용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안압지 판불 역시 동시기 중국에서 새로운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유행하고 있었던 전법륜인 불좌상 도상을 받아들여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37]

37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안압지에서는 삼존판불 외에도 유사한 크기의 보살상 판불과 소보살상 편들이 함께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모두 삼존판불과 마찬가지로 하단에 촉이 있어 불단 같은 곳에 꽂혀 불전을 장엄하거나 불감 안에 안치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삼존판불과 어떠한 관련을 맺으며 배치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더 이상 추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소보살상편의 경우는 보살상들의 자세가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의 보살상들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삼존판불의 주위에 놓여 마치 아미타불오십보살상과 같은 구도를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 15 화엄사 서탑 출토 전불들과 틀로 찍어낸 전불, 전남 구례 화엄사 서탑 발견, 7세기 말-8세기 초, 6×7.4cm (김리나, 2001: 도 6)

우리나라의 전법륜인 불좌상은 안압지 삼존판불 외에도 화엄사 서오층석탑에서 출토된 청동 전불들 도15[38]과 陳田寺址 3층 석탑의 제1층 탑신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39] 특히 후자의 경우는 사방불의 하나로 탑의 서면에 조각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전법륜인 불좌상이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예가 된다.[40]

VI. 결론

7-8세기 동아시아 삼국에서 전법륜인 불좌상 도상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변용되게 된 계기를 찾고자 한 본 논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

38 이 전불들의 연대에 대해서는 후백제설과 통일신라설,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전불들의 불상은 안압지 판불과 비교해 양감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대의 주름의 표현 등과 같은 형식적인 특징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안압지 판불보다 시대가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崔聖恩, 「華嚴寺 西五層石塔出土 靑銅製 佛像틀(范)에 대한 考察」, 『講座美術史』 15(2000. 12), pp.25-46; 김리나, 「통일신라시대 미술의 국제적 성격」, 『第7回 全國美術史學大會 統一新羅 美術의 對外交涉』(한국미술사학회 著, 예경, 2001), pp.22-24.

39 이 탑의 제작 연대는 대체로 8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陳田寺址 發掘報告』(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89. 6), p.30.

40 동면의 불좌상은 왼손에 약합과 같은 지물을 들고 있으며, 북면에는 시무외 · 여원인을 한 불좌상이, 남면에는 촉지인을 결한 불좌상이 있다.

릴 수가 있다. 6세기 후반 중국에 전해져 있었던 전법륜인 불좌상은 서상 제작의 전통과 아미타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변용되었으며, 그렇게 중국에서 재인식된 전법륜인 불좌상이 한국과 일본에 전해져 7-8세기, 일정 기간 동안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인도의 전법륜인 불좌상이 중국에 전해졌음을 알 수 있는 문헌 기록으로는 비록 현장의 『대당서역기』가 유일하지만, 현존하는 작품과 작품에 전하는 명문, 그리고 관련 문헌 기록들을 토대로 고찰을 해 보았을 때, 7-8세기 동아시아 삼국에서 통견 대의의 전법륜인 불좌상이 유행하게 된 배경에는 현장법사의 역할보다는 당대 중국의 신앙적, 사상적 흐름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현존하는 중국의 전법륜인 불좌상 가운데 초전법륜상으로 만들어진 예는 돈황 막고굴 제237굴 서벽 감정에 그려진 中唐代 瑞像圖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41] 이는 당시 중국인들이 초전법륜상으로서의 전법륜인 불좌상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아미타불로서의 전법륜인 불좌상보다는 비교적 늦게 등장하고 그 수가 전법륜인 · 아미타불좌상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보아 그러한 인식이 지배적이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구체적인 유물 · 문헌 자료들을 통해 동아시아 삼국에서 전법륜인 불좌상 도상의 전개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밝혀 그동안 단선적으로 보아온 전법륜인 불좌상 연구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증 자료와 기존 연구 성과의 부족으로 더욱 폭넓으면서도 치밀한 고찰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를 들어 8세기가 되면 통견 · 전법륜인 불좌상 외에도 편단우견 · 전법륜인 불좌상이 만들어졌는데[42] 그러한 형식의 불좌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석가모니불의 수인으로 성립된 전법륜인이라는 수인이 중국에 전해져 아미타불의 수인으로 사용되면서 야기된 문제는 없었는지, 내지는 현재 우리가 불상의 수인을 통해 불상의 존명을 구분하듯 당대 불교도들도 수인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관련된 문헌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외에도 당대 사천 지역의 불교 미술에 관한 제 문제—아미타불오십보살상을 비롯하여 많은 서상들이 왜 사천 지역에 많이 남아 있는지, 운남, 미얀마로 이어지는 남방루트상에 있었던 사천 지역이 중원지역보다 인도 불교 미술의 도상들을 먼저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없는지[43] 등은 앞으로 더욱 깊게 고찰

41 『中國石窟 · 敦煌莫高窟』 4(平凡社, 1981 · 1982), pl.109 부분.

42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43 당대 사천 지역의 불교 미술에 관한 견해는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우선 일찍부터 사천의 당대 불교 미술에 관심을 가진 Angela Howard는 운남과 미얀마를 통해 인도의 요소들이 직접 전래되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해 보아야 할 과제로 남는다.

* 주제어(key words) ___ 轉法輪印 佛坐像(Seated Buddha with *Dharmacakra-mudrā*), 阿彌陀佛五十菩薩像(Buddha Amitabha), 瑞像(Miraculous Image), 淨土往生思想(Belief in Rebirth in Amitabha's Western Pure Land), 雁鴨池 출토 金銅三尊板佛(Buddha Triad Plaque Excavated from Anap-ji), 法隆寺 金堂 벽화(Mural Painting in Golden Hall of Hōryūji, Kyoto, Japan)

▮투고일 2004년 9월 6일 | 심사일 2004년 10월 29일 | 심사완료일 2004년 11월 12일▮

그러한 남방루트 이론에 반대하는 Henrik Sorensen은 당대 사천과 장안과의 활발한 교류를 증거로 사천의 조각은 장안과 낙양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 조각의 영향하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Angela Howard, "Buddhist Sculpture of Pujiang, Sichuan: A Mirror of the Direct Link Between Southwest China and India in High Tang," *Archives of Asian Art* 42 (1989), pp.49-61; Henrik Sorensen, "Sculptures at the Thousand Buddhas Cliff in Jiajiang, Sichuan Province," *Oriental Art*, no.43 (1997), pp.37-48; "Buddhist Sculpture at Feixian Pavillion in Pujiang, Sichuan," *Artibus Asiae* 58 (1/2, 1998), pp.33-67.

부록 1*

道宣, 『集神州三寶感通錄』, 龍朔 3年(663)

阿彌陀佛五十菩薩像者西域天竺之瑞像也 相傳云 昔天竺雞頭摩寺五通菩薩 往安樂界請阿彌陀佛 娑婆衆生願生淨土 無佛形像願力莫由 請垂降許 佛言 汝且前去 尋當現彼 及菩薩還 其像已至 一佛五十菩薩各坐蓮花在樹葉上 菩薩取葉所在圖寫流布遠近 漢明感夢使往祈法 便獲迦葉摩騰等至洛陽 後騰姊子作沙門 持此瑞像方達此國 所在圖之 未幾齎像西返 而此圖傳不甚流廣 魏晉已來年載久遠 又經滅法經像湮除 此之瑞跡殆將不見 隋文開教 有沙門明憲 從高齊道長法師所得此一本 說其本起與傳符焉 是以圖寫流布遍於宇內 時有北齊畫工曹仲達者 本曹國人 善於丹青 妙盡梵跡傳模西瑞 京邑所推故今寺壁正陽皆其眞範

(『大正藏』 卷52, no.2106, p.421a-b)

阿彌陀佛五十菩薩像은 西域 天竺의 瑞像이다. 相傳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예전에 천축 雞頭摩寺에 있던 五通菩薩이 安樂界에 가서 아미타불에게 청하였다.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淨土에 태어나기를 원하나 佛의 형상이 없어 願力이 한이 없습니다. 청컨대 사바세계에 내려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佛이 말하였다. "네가 먼저 가도록 하여라. 곧 그곳에 나툴 것이다." 보살이 사바세계에 돌아와 보니, 像이 이미 도착해 있었는데, 一佛과 五十菩薩이 각각 연꽃에 앉은 채로 나뭇잎 위에 있었다. 보살은 나뭇잎을 가져와 여러 곳에 圖寫하여 遠近에 널리 유포하였다.

한명제는 꿈에 감응이 있어 사신을 보내 법을 구하도록 하였는데, 곧 迦葉摩騰 등이 洛陽에 도달하였다. 후에 迦葉摩騰의 姊子가 사문이 되어 그 瑞像을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오자 이곳에서도 圖寫가 행해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을 가지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 그림과 이야기는 널리 전해지지 못했다. 魏晉 이래로 세월이 흐르고, 몇 차례 불법이 탄압을 받자 경전이나 상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 상의 상서로운 흔적도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隋 文帝가 불법을 부흥시키자 明憲이라는 사문은 高齊의 道長法師의 처소에서 도상 한 본을 얻었는데, 그 본과 기원이 전하는 바와 일치하였다. 그래서 그는 상을 圖寫하여 온 나라에 유포하였다.

이 때 北齊의 畫工 曹仲達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曹國人으로 丹靑을 잘하고 梵跡과 西域의 瑞像을 베끼는 데 능하여 京邑의 추천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사원 벽 正陽에 남아 있는 것은 모두 그의 眞範이다.

부록 2**

四川省 梓潼縣 臥龍山 千佛巖 造像碑, 貞觀 8年(634)

阿彌陀佛幷五十二菩薩傳　鄧元覺書　作龕及錐字　楊子尙

阿彌陀佛五十菩薩像者盖西域之瑞像也傳云
彼國雞頭摩寺有五通菩薩至安樂世界白阿彌
陀佛言世尊娑婆世界無世尊像今願得之按彼
供養佛言可爾汝且前去尋遣送□菩□卽還適
到裟婆其像已至有一佛五十菩薩右坐蓮華於
樹葉上圖寫在菩薩前立菩薩遂取供養於是彼
國始有此瑞像焉至後漢明帝使郎中蔡愔從雪
山南懸度道而入天竺請三藏法師迦葉摩騰至
此洛州爲立精舍於後有三藏姊子法師□從彼
至持此像來於此漢地始有此像其姊子法師未
盈幾時還將此像而歸西域記傳如此□始漢地
佛法始□人情疏略本像復還致今此土不廣流
布自魏晉已來年歲久遠佛流行慮延頹毁至於
同寫之迹殆欲夢聞阿彌陀佛坐千葉蓮華□相
竝出至大隋開皇元年明獻法師言從道齊長法
師所得此一軀說其□起與本無別是已遂更圖
寫流布至十六年有豫州刺史鄭在州訪得一軀
幷本傳遂將入京在眞寂寺流通供養於是京師
始有斯像　　貞觀八年七月十四日

阿彌陀佛五十菩薩像은 西域의 瑞像이다. 傳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서역 雞頭摩寺에는 五通菩薩이 있었는데, 그는 安樂界에 가서 아미타불에게 말하였다. "세존이여, 사바세계에는 世尊의 像이 없으니 이제 像을 얻어 공양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佛이, "좋다. 네가 먼저 가도록 하여라. 곧 보내도록 하겠다." 하였다. 보살이 사바세계에 돌아와 보니 像이 이미 도착해 있었는데, 一佛과 五十菩薩이 蓮花에 앉은 모습이 나뭇잎 위에 圖寫되어 있었다. 보살은 그것을 가져다 공양하였는데 이로써 이

나라에서 그 瑞像이 시작되게 되었다.

後漢의 明帝는 郎中 蔡愔으로 하여금 雪山 南道를 따라 天竺에 들어가 三藏法師 迦葉摩騰에게 洛陽에 와 精舍를 세워줄 것을 청하게 했다. 후에 三藏의 姊子(누이의 아들)가 法師가 되어 그를 따라 상을 가지고 오자 漢地에서도 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상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西域記』에는 전하고 있다. 그 때 漢地에서는 佛法이 시작되었으나 人情이 모자라 상이 다시 돌아갔고 지금까지 이 땅에서 널리 유포되지 못했다. 魏晉 이래 오랜 세월이 흐르자 佛의 유행은 점차 잊혀져 圖寫해 놓은 흔적도 사라지고, 꿈에서 아미타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千葉 蓮花에 앉아 □(글자 剝落)와 함께 출현할 뿐이었다.

隋 開皇 元年(581)에 이르러 明獻法師는 道齊長法師의 처소에서 그 상 한 구를 얻게 되었는데 그 기원과 本이 다름이 없음을 알고 圖寫하여 유포하였다.

開皇 16년(596) 豫州刺史 鄭氏는 그곳에서 상의 畵本을 얻어 이 傳과 함께 京으로 가지고 와 眞寂寺에서 유통시키고 공양하였다. 이렇게 하여 京에서도 이 상이 시작하게 되었다.

* 번역은 이한정 역, 『한글대장경 集古今佛道論衡 外』(東國譯經院, 1999), pp.459-460을 참조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다.

** 명문의 全文을 가장 먼저 採錄하여 발표한 것은 胡文和, 『四川道教佛教石窟藝術』(四川人民出版社, 1994)이다. 그 후 現地 조사를 한 勝木言一郎도 명문을 실었으나, 11번째 항의 내용이 빠져 있고 誤讀한 부분이 있다(勝木言一郎, 「中國における阿彌陀三尊五十菩薩圖の圖像について－臥龍山千佛岩の作例紹介とその意義」, 『佛教藝術』 214号, 毎日新聞社, 1994, pp.61-73). 本考에서는 두 사람의 명문을 토대로 더 자세한 實地답사를 한 岡田健의 採錄을 따랐다. 岡田健(2000), p.166.

국문초록

本 논문은 瑞像의 일종인 阿彌陀佛五十菩薩像을 통해 인도로부터 전래된 轉法輪印 佛坐像 형식이 阿彌陀佛의 圖像으로 變容될 수 있었던 계기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인도 굽타 시대를 대표하는 불좌상 형식 가운데 하나인 전법륜인 불좌상은 본래 臺座에 鹿野園을 뜻하는 사슴과 說法을 의미하는 法輪을 조각함으로써 釋迦牟尼의 녹야원 첫 설법을 상징하는 像으로서 성립되었다. 주위에 化作으로 생겨난 小佛陀들을 배치하여 舍衛城에서 千佛을 化現시키는 神變을 보이는 석가모니의 像으로 제작되기도 한 인도의 전법륜인 불좌상은 대부분 釋迦牟尼의 像으로 제작되었을 뿐, 다른 특정한 불타를 의미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7-8세기 中國·韓國·日本에서 제작된 전법륜인 불좌상은 석가모니가 아닌, 아미타불의 상으로 제작된 예가 많아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인도의 전법륜인 불좌상은 6세기 후반, 北齊代에 중국으로 전해졌다. 7세기가 되면 중국의 전법륜인 불좌상은 양 옆에 협시보살이 侍立하고,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자유로운 자세로 앉아있는 50체의 小菩薩像들이 배치된 阿彌陀佛五十菩薩像으로 제작된 예가 다수를 점한다. 阿彌陀佛五十菩薩像이라는 명칭은 634년에 제작된 四川省 梓潼縣 臥龍山 千佛巖 造像碑와 唐 道宣律師가 편찬한 『集神州三寶感通錄』(663)에 근거한 것이다. 두 기록에 따르면 阿彌陀佛五十菩薩像은 서역 천축의 瑞像으로, 정토왕생을 바라는 중생들을 위해 安樂界의 아미타불이 사바세계에 내려보내 주었다고 하는 신비로운 유래가 전하는 상이다. 그 상은 불교가 처음 전해진 後漢 明帝 무렵 迦葉摩騰의 姊子에 의해 중국에 알려졌으나 오랫동안 유포되지 못하다가, 隋 開皇元年(581) 明憲이라는 사문이 北齊 道長法師의 처소에서 상 한 구를 얻어 그 本을 이야기와 함께 널리 유포함으로써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상의 유래나 도상의 중국 전래 과정에 관한 이와 같은 이야기는 역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허구에 해당된다.

중국의 불상 중에는 아미타불오십보살상처럼 신비로운 유래담이 전하는 상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상들을 瑞像이라 지칭하는데, 그 상들에 전하는 믿기 힘든 유래담은 주로 상에 대한 권위와 신비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불교도들에 의해 각색된 것이다. 그와 같은 瑞像들은 상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자 많은 모사가 이루어졌는데, 아미타불오십보살상 역시 그러했다.

현존하는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은 634년에 제작된 사천성 재동현 와룡산 천불암의 조상을 비롯하여 綿陽 壁水寺, 通江 千佛崖, 巴中 南龕石窟 등 사천 지역 여러 석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敦煌 莫高窟 제332굴에는 벽화로 제작된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이 남아 있으며, 河南省 龍門石窟 袁弘勣洞에는 아미타불오십보살상으로 추정되는 造像들이 있다.

通肩 · 轉法輪印 불좌상과 50체의 小菩薩像으로 이루어진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은 인도로부터 전래된 전법륜인 불좌상 형식이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變容되었음을 보여준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瑞像 제작의 전통 속에서 중국 불교도들은 전법륜인 불좌상을 신비로운 유래가 있는 새로운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小菩薩像 50체를 덧붙임으로써 그것을 瑞像의 일종으로 재창조한 것이다.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을 계기로 아미타불의 도상으로 확고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通肩 · 轉法輪印 불좌상은 일정 시기부터는 小菩薩像은 제외된 채 단독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小菩薩像 도상 역시 여러 가지 변형을 거쳐 佛說法圖나 經變相圖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한편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阿彌陀佛五十菩薩像의 本은 統一新羅와 奈良에 전해져 여러 가지 변형 혹은 생략된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韓國의 雁鴨池 출토 金銅三尊板佛과 日本의 法隆寺 金堂 제6호벽 벽화이다.

瑞像의 일종으로 성립된 아미타불오십보살상은 인도로부터 전래된 전법륜인 불좌상 형식이 동아시아 삼국에서 독자적인 수용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7-8세기 한국과 일본에서 유행한 通肩 · 轉法輪印 불좌상의 직접적인 圖像的 원류가 된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Seated Buddha Images with *Dharmacakra-mudrā* from the 7th-8th Centuries in East Asia

in Relation to the Origin of the Gilt-bronze Buddha Triad Plaque Excavated at Anap-ji, Gyeongju

Choi Sun-ah

This paper explores the advance of the seated Buddha images with *dharmacakra-mudrā* in East Asia during the 7th-8th centuries in relation to the iconographic type of the "Amitābha with fifty bodhisattvas" and the formation of *ruixiang* (瑞像, auspicious image) in medieval China.

In Indian Buddhist art, a seated Buddha with *dharmacakra-mudrā* was commonly understood as a representation of the Buddha Śākyamuni giving the first sermon at the Deer Park in Sārnāth; when it appears in combination with several small Buddhas, it was regarded as Śākyamuni performing the great miracle at Śrāvasti. However, in China, Korea and Japan, especially during the 7th and 8th centuries, this type of images seems to have been made as Amitābha.

The earliest extant example of a seated Buddha with *dharmacakra-mudrā* in China is dated from the latter half of the 6th century. In the 7th century, this type often appeared with fifty small bodhisattvas, and this particular format was called as *Amitafo wushipusa xiang* (阿彌陀佛五十菩薩像, image of Amitābha with fifty bodhisattvas). There are two sources for this designation: (1) an inscription on a stele of 634 at the Thousand Buddha Cliff at Mt. Wolong (臥龍山) in Zidong (梓潼), Sichuan (四川); (2) a record in the Ji

Shenzhou sanbao gantong lu (集神州三寶感通錄, Collected Records of Spiritual Responses of the Three Jewels in China) compiled by Daoxuan (道宣) in 668. These two sources preserve various stories about the Amitafo wushipusa xiang. For example, it tells that the original image was a ruixiang from India and was sent by Amitābha for those who prayed for rebirth in Amitābha's Western Pure Land. It is also told that the image was introduced in China in the first century A.D. during the Later Han but to be forgotten immediately afterwards. Then about 500 years later, the image came to be known again when a monk named Mingxian (明憲) obtained an image at the residence of the master Daochang (道長) in the first year of Kaihuang (581) of the Sui. Mingxian transmitted its sketches to other provinces, and thus this image came to be known widely.

As Interesting as these written sources may be, most of the stories have no substantial basis. Although Buddhist images in China that had mysterious and marvelous origins were called *ruixiang*, auspicious images, these incredible stories were in most instances fabricated by Chinese Buddhists to endow authority and magical power to the images. In *Ji Shenzhou sanbao gantong lu*, fifty stories are listed recounting the auspicious images from the Han to the Tang, and *Amitafo wushipusa xiang* is one of them. The auspicious images were copied repeatedly for their miraculous origins and spiritual power, so was the *Amitafo wushipusa xiang*.

Many examples of the *Amitafo wushipusa xiang* are found in Sichuan province. The earliest is one at the Ten Thousand Buddha Cliff at Mt. Wolong. There are other examples at Bishui Monastery (壁水寺) at Mianyang (綿陽), Ten Thousand Buddhas Cliff at Tongjiang (通江), and Southern Niches Grotto at Bazhong (巴中). A painted version is preserved in Cave 332 of Dunhuang. A sculptured example is also in the Yuanhongze Cave (袁弘勣洞) in Longmen.

Although the iconographic type of the seated Buddha with *dharmacakra-mudrā* was transmitted from India, Chinese did not simply accept it but transformed it as a new type for Amitābha. The tradition that the image was sent by Amitābha himself played an important role in justifying and empowering the new iconography.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re also exist images of this type without fifty bodhisattvas. Yet the context of production or accompanying inscriptions confirm that they all represent

Amitābha.

The popularization of the new Amitābha type in East Asia during the 7th and 8th centuries is attested by contemporaneous images from Korea and Japan. In the gilded bronze Buddha triads excavated from Anabji (雁鴨池) in Gyeongju (慶州), datable to the late 7th to the early 8th centuries, the main Buddha is seated with *dharmacakra-mudrā*. A similar image is also found in an Amitābha triad painted in the golden hall of Hōryūji (法隆寺). The stylistic and formal characteristics of these two works closely resemble the Amitābha type in the *Amitafo wushipusa xiang*. This enables us to speculate on the possibility of using sketches or copies of Chinese examples of *Amitafo wushipusa xiang* in creating Amitābha images in the Unified Silla and the Nara during the 7th and 8th centuries.